

# 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률 완화 정부에 건의

### 기상이변 따른 재해 일상화 속 피해 규모도 커져 보험 산출기준 개선·자기부담비율 인하 등 5건

전남도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할증률을 완화하고 보상 수준을 향상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농업 재해가 반복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가 경영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정확량의 최저값을 제외하는 기준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하도록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딸은감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했다. 2021년에는 할증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

으로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보험료는 더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개정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실제 정부 개정안으로 벼를 1ha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를 50%, 자기부담비율 20%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보장) 금액은 수확량 기준으로 개정 전인 956만원보다 36만7000원이 적은 920만원 수준이다. 또 보험료는 할증률 상향에 따라 개정 전보다 5만2000원이 많은 52만7000원을 내는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11만원이 적은 276만원이다.

배도 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보장) 금액은 개정 전보다 159만원이 낮은 4253만원

이다. 보험료는 104만원이 증가한 1587만원인 반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개정 전보다 982만원이 적은 1489만원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등과 달리 농업인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에도 할증률을 높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서를 찾아 농업재해가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험가입(보장) 금액 산출기준 개선(직전 5개년 수확량 중 최저값 제외) ▲보험

료 할증률 완화(30%) ▲과수 4종 적과 전 보상수준 상향(80%) ▲자기부담비율 인하(15%) ▲병충해 보장범위 확대(양파 노균병, 밀 붉은곰팡이병 등) 등이다. 전남도는 개정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부터 보험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기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지난해 도내 전체 10만6000농가가 보험료 165억원(10%)을 납입하고 보험금 992억원을 지급받아 경영안정에 보탬이 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올해 엘니뇨에 따른 4월 저온피해를 시작으로 6월 서리, 6-7월 극한폭우와 28일간 지속된 장마 등 유례없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재해에 대응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관광재단·코레일 공동 '가을 여행 상품' 확대 운영

전남관광재단이 '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전남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4월 출시한 열차 관광상품을 가을시즌을 맞아 확대 운영한다.

이번 열차 관광상품은 개별·소규모 여행 트렌드에 맞춰 재단은 숙박, 렌터카, 체험비를 지원하고, 코레일은 KTX 열차 운임 할인을 지원한다.

서울과 경기·충북권 등 여행객이 KTX를 타고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담양, 목포, 보성, 강진을 여행할 경우 숙박, 렌터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호남선에는 담양 달라이트,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전라선에서는 보성 녹차체험 등과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전남관광재단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통해 관광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열차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품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갯벌 소득자원 낙지·가리맛조개 자원 회복 운힘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각 5만 마리·80만 마리 인공종자 방류 계획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갯벌연안의 고소득 수산자원인 낙지와 가리맛조개 등의 자원을 증강하고 건강한 갯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량종자를 생산, 방류하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신안수협 등과 협력해 10월 말까지 도내 해역에 어린 낙지 5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신안 송공해역에서 1만 마리 방류를 마쳤다.

전남지역 낙지 생산량은 지난해 3542t을 기록했다. 전국 생산량(5383t)의 66%를 차지하는 규모다. 하지만 생산량에 비해 수요량이 많아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3만1350t)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 조성과 관리가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낙지 인공종자 생산 연구를 통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1만 5000마리를 생산해 방류했다. 올해 방류하는 어린 낙지 5만 마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성숙한 어미 낙지 2240마리를 확보해 먹이 공급, 수온 조절 등 안정적 관리를 통해 알을 받아 부화시켰다. 크기는 4~5cm다.

어린 낙지는 방류 즉시 갯벌에 잠입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고, 방류해역에 정착해 1년 만에 어미로 성장하는 특성이 있어 어업인 호응이 크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또 수산물 지리적표시 품목으로 등록된 순천만 가리맛조개를 10월 말까지 100만 마리를 방류한다는 목표다. 이미 지난 9월 순천만 서식지에 우량종자 80만 마리를 방류했다.

가리맛조개는 전남이 전국의 95% 이상을 생산하고 있지만 환경오염, 서식지 변화 등으로 1990년대 6000t 생산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지난해 600t에 머물렀다. 가리맛조개는 조개류 중 굴, 바지락, 동죽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품종이다. 패각 형태가 원통형으로 길쭉한 것이 마치 대나무를 닮았다 해 이름 붙여진 백합목 죽합과의 중형 조개다.

순천만 일대에서 생산되는 가리맛조개는 전국 제일 품질로 크기도 크고, 맛도 좋아 일본으로 수출되는 효자 품종이다.



## 전남도, 부산 국제관광전 참가 전남 매력 알려

###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지난 8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제24회 부산 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전남의 풍부한 매력을 알렸다.

이번 박람회는 40여 개국, 250여 개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부산국제 트래블파크(10.5.-15.)와 부산국제트래블마트(10.11.-15.)와 연계·개최됐다.

전남도와 관광재단은 '전남·울산 교류의 달(2023. 9.)'을 기념해 공동 홍보부스를 마련해 여행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면서 일반 관람객에게는 전남의 웰니스 관광지와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부산 국제관광전 참가를 통해 전남관광 홍보는 물론, 지역 여행업계와의 두터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해 국내 관광객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행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면서 일반 관람객에게는 전남의 웰니스 관광지와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부산 국제관광전 참가를 통해 전남관광 홍보는 물론, 지역 여행업계와의 두터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해 국내 관광객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하반기 종자유통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이 오는 16일부터 연말까지 불법·불량 종자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하반기 종자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종자유통단속은 도내 종자(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종자업·육묘업 등록여부, 생산·수입·판매신고 미이행 종자 취급 여부, 품질표시 미이행 종자 취급여부 등을 집중단속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서는 배란다 텃밭 등 가정 내 소규모 농업의 유행으로 인터넷

소규모 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 등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통종자 품질 검정을 통해 거짓 품질표시 종자의 판매 중지(회수)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서고 있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담당자는 “불법·불량 종자유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지역 5일 장 등의 소규모 거래라도 종자(묘)의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완도수목원 정원관리 활동가 40명 모집...이론·실습 교육

완도수목원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원관리 자원활동가를 모집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정원관리사 교육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미경 작가와 함께하는 가든 드로잉(Garden Drawing)실습, 조경수목 및 정원관리법(김종영 박사), 수목원 전문소설 가지치기 등 정원관리 이론 및 실습, 환경 정화 활동 등 봉사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교육은 11월 21일까지 7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실시한다. 교육생 모집은 1365 자원봉사 누리집(www.1365.go.kr)을 통해 40명을 모집하며, 정원식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완도수목원은 지난 2019년부터 공모와 심사를 통해 전라남도로부터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지역 주민들에게 정원 관련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요령 등 기초과정을 실시해 22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내년에는 심화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 140시간을 이수하고, 정원 분야에서 30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적에 있는 교육생에게는 '전라남도 정원관리사' 인증서가 수여된다.

정원관리사가 되면 시·군에서 조성하는 공동체 정원 가든 서포터즈로 참여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정원 및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에서 정원사로 활동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